양양소식

2023. 8

Vol. 339

CONTENTS

04 기획특집 양양 남대천	08 함께 가는 길 양양군체육회	12 Story in 양양 양양 새활용센터

그곳이 그립다 · 2

박응남

별을 헤이다
곤히 잠든 어린 가슴

새파란 하늘
그리고 그리다
꿈을 담아 별을 꿰는

눈빛
빈짝이는 아이

박응남

프로필
약력 : 1997년 순수문학 등단
시집 : 『꽃바구니에 담긴 사랑』
『반 평의 자리』
『부싯돌의 불꽃』
『사랑이 머무는 곳』
양양문인협회 초대지부장 역임
26회 영랑문학상 수상
양양문학과 솔잎동인에서 활동

양양소식

2023. 8
Vol. 339

고맙다! 양양
THANK YOU! YANGYANG

CONTENTS

희망양양

4 **기획특집**_양양 남대천
8 **함께 가는 길**_ 양양군체육회
12 **Story in 양양**_ 양양 새활용센터
15 **양양, 어제 그리고 오늘**_ 죽도해수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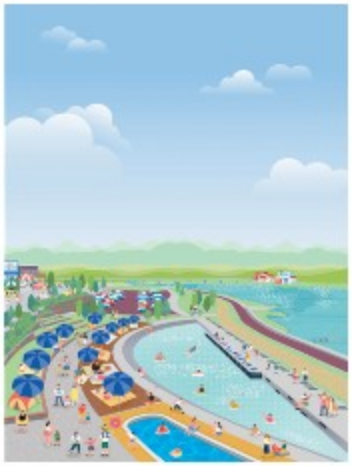
의기양양

16 **의정소식**_ 제9대 양양군의회가 걸어온 1년
18 **향토사 이야기**_ 바꾸미들이 넘던 길, 단목령
20 YANGYANG NEWS

열린양양

22 **문화마당**_ 양양교육도서관 사서추천도서
양양작은영화관 상영 예정작
24 **건강 알리미**_ 물놀이 안전수칙
25 **정보꾸러미**_ 공공기관 행정정보 / 일자리정보
28 **공익광고**_ 양양페스티벌

COVER DESIGN



양양군 SNS 주소

블로그 : http://blog.naver.com/likeyyang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likeyangyang
유튜브 : https://www.youtube.com/c/likeyangyang_official
인스타그램 : https://www.instagram.com/yangyangcity_official/

양양소식 · 339호

양양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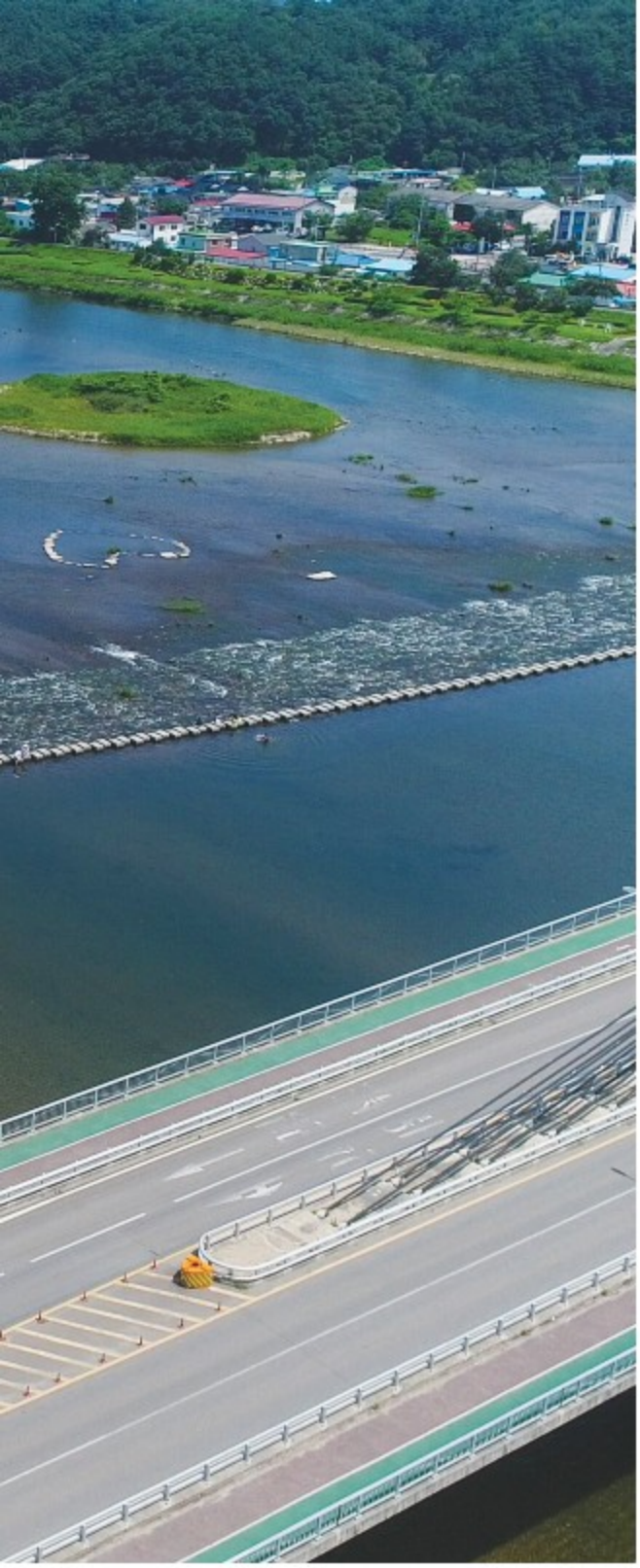
| **발행일** 2023년 8월 1일 | **발행인 양양군수**
| **편집인 기획감사실장**
| **발행처 양양군** Tel. 033-670-2103 Fax. 033-670-2276
www.yangyang.go.kr

양양군정소식지 「양양소식」은 월간 무료 구독지 입니다.
구독은 tashidele90@korea.kr로 신청 바랍니다. (이름, 주소, 연락처 기재)

남대천 르네상스 시대를 연다

명품하천, 양양 남대천

남대천이 양양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주목받고 있다. 양양군이 통신, 카드 소비 등을 활용해 조사한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관광객 100만 명이 남대천을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연어의 강, 양양 남대천'이 자연생태관찰로, 물놀이장, 파크골프장, 수상레포츠체험센터 등을 품은 명품하천으로 재탄생했기 때문이다. 남대천은 지역 주민은 물론 관광객들에게도 즐거움과 힐링의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다.



남대천의 르네상스 시대 개막

남대천을 친환경 생활과 힐링공간으로 정비하기 위한 '양양 남대천 르네상스 프로젝트' 사업이 결실을 거두고 있다. 연어와 함께 남대천을 대표하는 어류인 황어가 올봄에도 지난해처럼 떼 지어 올라왔다. 회유성 어종인 연어와 은어, 황어의 이동을 막았던 보와 어도가 대폭 개선되면서 생태관찰수로에 다양한 어종의 치어들이 관찰됐다. 그래선지 요즘 부쩍 남대천에 강태공들이 늘었다. 지난 2014년부터 시작해 10여 년간 가꾼 사업의 결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남대천의 생태환경 복원으로 돌아오는 건 물고기들만이 아니다. 생태관광지, 수변 산책로 등 자연 친화 휴식 공간이 조성되면서 많은 이들이 남대천을 찾고 있다. 수변과 도시가 조화를 이루며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변모했다. 양양 역사와 문화의 발상지 남대천이, 다시금 르네상스 시대를 열고 있다.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남대천

7번 국도로 양양에 진입하면서 남대천을 가로지르는 양양대교와 양양교 사이에 푸릇푸릇한 정원이 눈길을 끈다. 남대천 물가를 따라 물고기와 꽃이 어우러진 정원이란 뜻의 '어화원'과 주민이 함께 나무를 심고 가꾼 '주민참여 정원'이 내려다보인다. 아기자기한 정원에 군데군데 조명등도 설치돼 있어 야간 명소로도 사랑받고 있다. 남대천을 따라 수변 테라스와 샛강 옆 산책로가 있어 물소리를 들으며 걷기에 좋다. 남대천을 가로지르는 징검다리(여울)도 낭만적이다. 산책하거나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꽃을 피우는 사람들의 힐링공간이 되고 있다. 드넓은 잔디밭 넘어 남대천 풍경이 평화롭다. 남대천을 찾는 사람들의 표정도 풍경과 닮아있다.

남대천에서 즐기는 바캉스 '퐁당퐁당 물놀이장'

양양교 인근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남대천 퐁당퐁당 물놀이장'이 개장했다.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 운영한다. 퐁당퐁당 물놀이장은 남대천을 배경으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자연 친화적 공간이다.

어린이 물놀이장과 유아 물놀이장, 그늘막 쉼터, 샤워장과 탈의실, 수변 스탠드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양양 남대천을 찾는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물놀이장은 최대 수심 30cm 이하로 아이들이 구명장비 없이도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

청결한 물놀이장 관리를 위해서 매일 30분간 2회, 수질검사 등 수질 관리 클리닝 시간을 운영한다. 바로 옆 분수대는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이다. 분수대는 야간조명과 함께 오후 9시까지 가동돼 더운 여름 시원한 물보라를 선사한다.

양양 남대천 퐁당퐁당 물놀이장

* 주소 : 양양군 양양읍 남문리 226-2
  (양양 남대천체육공원 주차장에서 양양교 방향에 위치)
* 개장기간 : 7월 1일(토)~8월 31일(목)
* 운영시간 : 오전 10시~오후 6시
  (※클리닝 타임 : 12시~12시 30분, 15시~15시 30분)
* 휴장 : 매주 월요일 및 우천 시

생태 레저관광의 중심지

양양대교를 기점으로 낙산대교로 이어지는 남대천 하구 쪽은 생태관찰로와 친환경 수상레포츠 시설, 자연 친화적 체육 공간인 파크골프장 등 복합 생태 · 레저 관광지대로 조성했다. 주민의 스포츠 여가 문화를 위한 남대천 파크골프장은 최근 45홀로 확장했다.

전국대회 유치가 가능한 큰 규모로 만들어 지역 경기 활성화에도 기대가 크다. 입소문을 타고 평일 오전에도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이들이 많다. 파크골프장 주변에는 아이들을 위한 자연 놀이터와 다목적마당, 산책로 등을 조성해 일반인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양양 남대천 파크골프장
* 주소 : 양양군 양양읍 송암리 540
* 운영시간
- 하계 : 조기 (06:00~08:00), 주간 (08:00~18:00)
- 동계 : 조기 (07:00~09:00), 주간 (09:00~17:00)
* 휴장 : 매주 월요일

남대천 수상레포츠체험센터

파크골프장에서 좀 더 하구 쪽으로 내려가면 남대천 수상레포츠체험센터가 있다. 센터 주차장 바로 옆에는 연못으로 조성된 섬들나루에 연꽃이 한창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다. 한여름 연꽃이 절정을 이룰 때 다시 찾으면 더욱 볼만할 것 같다. 남대천 수상레포츠체험센터 1층은 황포돛배인 섬들나루호(12인승)와 전동보트(4인승, 6인승)를 탈 수 있는 탑승장이다.

남대천 물살을 가르며 색다른 생태관광을 즐길 수 있다. 2층은 남대천을 조망할 수 있는 카페 둔치가 운영 중이다. 카페에서 내려다보면 멀리 낙산대교 넘어 바다까지 한눈에 들어온다. 센터 근처 나무데크로 조성된 남대천 생태관찰로는 갈대가 우거진 가을의 정취가 볼만한데 봄 · 여름 · 가을 · 겨울 사계절마다 또 다른 생태관광의 묘미가 있다.

남대천 르네상스 프로젝트 10여 년간의 사업이 거의 마무리됐다. 그동안 남대천은 자연친화 휴식공간인 명품하천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남대천은 양양의 역사 발상지에서 생태와 문화, 관광 중심지로 온 국민에게 사랑받는 힐링 공간으로 거듭나는 중이다.

〈글 · 사진 : 편집부〉

군민 건강과 스포츠 발전 책임
엘리트체육에서 생활체육까지 진화 중
건강하고 행복한 삶

양양군체육회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는 여름. 이런 날씨에는 야외 활동을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운동량이 급감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운동 중단으로 인한 건강 부작용을 생각하면, 여름이라고 운동을 중단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운동 강도는 좀 낮추고, 뜨거운 낮보다는 해가 지고 기온이 내려가는 밤에 운동을 이어가 보는 건 어떨까.

아름다운 야경을 보면서 시원한 남대천 밤바람을 마주하고 즐기는 라인, 줌바 댄스. 요즘 해변에서 하는 비치요가가 유행이라지만, 여름밤 종합운동장에 매트를 깔고 하는 요가는 더욱 이색적이다. 상상만으로도 유쾌한 풍경이지만 실제로 매주 화, 수, 목요일 저녁 7시마다 남대천 둔치와 종합운동장에서 양양군체육회가 벌이는 일이다.

군민 건강과 스포츠 발전 책임

양양군에서 활동하는 스포츠 동호회 종목은 몇 개나 될까. 국민 스포츠인 축구, 야구, 배구, 농구는 말할 것도 없고, 요즘 인기 상한가인 테니스, 서핑은 물론, 자전거, 탁구, 수영, 바둑, 볼링, 골프, 태권도, 배드민턴, 당구, 실내조정, 요트까지 양양군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동호회만 41개 종목이다.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은 또 어떤가. 어린이, 청소년, 성인, 어르신,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빼곡하게 운영하고 있다. 이쯤 되면 운동에 관심 있는 군민이라면 양양군체육회에 한 다리 걸치지 않은 이가 없을 정도라 해도 될 것이다.

양양군체육회가 운영하는 체육 관련 사업만 해도 170여 개에 이른다. 생활체육 지도자, 어르신 체육활동 지도자,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전문체육 지도자 배치사업을 통해 생활체육 동호인, 어르신, 장애인, 청소년, 학교체육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육상 엘리트 육성지원, 바둑교실, 생활체육 동호회리그(풋살, 라지볼 탁구), 군수배 전국 레이저요트대회, 강원도 궁도대회, 양양군민 건강달리기대회, 송이배 전국 오픈 배드민턴대회, 트랙 바이크 아마추어 챔피언십대회, 송이배 전국 시니어 테니스대회, 각종 군수기대회 등을 개최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생활체육대회, 도 종목별 협회장기대회, 도지사기 및 엘리트 수시체육대회 참가종목 지원사업까지 양양군의 체육진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담당한다.

엘리트체육에서 생활체육까지 진화 중

최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에서는 양양군의 유일한 엘리트 종목인 자전거에서 대회 신기록 2개와 함께 금 35개, 은 7개, 동 3개 등 종목 점수 4,655점을 획득하면서 엘리트 육성 종목의 진면목을 보여줘 다가오는 전국체육대회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특히, 양양군체육회의 육상종목 활성화 사업으로 훈련한 양양중학교 출신 선수들이 타지역 학교에 진학하거나 실업팀에 입단하여 양양군 소속으로 출전한 결과 금 6개, 은 8개의 성적을 올렸다. 바둑, 보디빌딩, 핀수영 선수들은 열악한 훈련 여건 속에서도 종목별 점수 1,000점 이상을 획득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

양양군체육회는 양양군민의 건강증진을 목표로 하는 생활체육 분야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과 후 저녁 운동을 즐기는 군민들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야간 시간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야외에서 진행하는 요가, 라인, 줌바 댄스의 반응이 아주 좋다. 여름밤 편안하게 운동을 즐길 수 있다고 입소문이 나면서 참가자가 늘어나는 추세다. 르네상스 사업을 통해 완성된 양양의 아름다운 남대천 야경과 넓은 종합운동장에서 운영하는 반딧불이 프로그램은 주 3회, 회차별 50여 명씩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5월부터 시작하여 누적 1,500여 명의 군민들이 참여하였으며 11월까지 진행할 예정으로 양양군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지난 6월에는 코로나19 여파로 4년 만에 열린 양양군민 체육대회를 새롭게 변화시켜 군민들의 호응을 받았다. 54회 동안 이어져 오던 읍면 대항 체육대회를 군민 화합 한마당 행사로 시도한 것이다. 읍면별 노령화로 인해 선수선발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치열한 경쟁의식으로 위화감을 조성하기보다는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레크레이션 위주의 종목을 선정하여 군민 모두가 화합하는 축제 형식의 행사로 치르고자 했던 김연식 체육회장의 의지가 돋보였다. '양양군민 체육대회'에서 '양양군민 화합 한마당'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치러낸 성공적인 출발과 함께 앞으로도 군민 결속과 화합을 다질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군민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삶

열악했던 양양군 체육시설은 최근 눈에 띄는 인프라 확충으로 군민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기존 27홀로 개장했던 남대천 파크골프장은 18홀을 추가로 확충해 지난 6월 총 45홀로 확장 개장하였으며, 주변 편의시설도 조성했다. 파크골프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과 인기가 급격히 높아지자 자연스레 동호인이 증가하고 군민들의 건강증진은 물론 전국규모의 파크골프대회 유치도 넘볼 수 있게 되었다. 기존 시설들이 소규모로 지어져 대규모대회 유치가 어려웠던 반면,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으로 대규모대회를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 양양군체육회의 바람이다.

현재 양양생활체육센터 2층을 볼링장으로 증축하고 있다는 점도 기대감을 불어넣고 있다. 과거 많은 볼링 동호인들이 있었지만, 볼링장이 없어 인근 시군을 다녀오던 동호인들이 볼링장 개장과 함께 활발한 참여를 준비하고 있어 군민 사이에 또 한 번 볼링붐이 예상된다. 지난 4월에는 카누연맹을 창립하여 남대천을 주무대로 활동하는 수상레포츠인 카누교실을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드론스포츠협회를 창립해 추후 스포츠드론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현지 실정에 맞춰 드론을 활용한 산불감시 및 예방 활동 등을 하면서 생활체육에 접목시킬 예정이다.

오는 9월에 있을 강원특별자치도민생활체육대회를 앞두고 체육회는 분주하고 참가할 군민들도 준비가 한창이다. 그리고 양양군의 숙원이었던 2020년 강원도민체육대회가 코로나19로 개최되지 못한 아쉬움을 떨쳐내고, 유치 재신청 절차를 거쳐 드디어 2024년도에 개최하게 되었다. 양양군체육회는 4년을 기다린 만큼 역대 최고의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남다른 각오를 다지고 있다.

좋은 선수들을 발굴하고 멋진 성과를 보여주겠다는 각오에만 그치지 않고, 체육대회 참가단이 양양군에 머무르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마음가짐이 양양군체육회가 함께 가는 길이다.

〈글 · 사진 : 편집부〉

양양 새활용센터

환경을 지키기 위한 작은 실천, 우리 '다시(DASH)' 해볼래요?

요즘 날씨 참 이상하다. 작년보다 더 무더워지고, 비도 많이 내린다. 이게 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이라고 하는데, 지구가 병들어가고 있다는 신호인 것 같아 마음이 못내 불편하다. 최근 양양에서는 환경을 생각하는 자원순환 캠페인이 한창이다. 버려지는 수입주류병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환경을 지키기 위한 작은 실천을 제안하는 양양 새활용센터가 바로 그 주역이다.

*재활용(recycling) : 물건을 다시 사용함으로써 쓰임의 기간을 연장
*새활용(upcycling) : 물건에 아이디어를 더해 더욱 가치 있는 제품으로 재탄생

수입주류병이 쓰레기?
분해되는 데만 천년만년!

몰라도 너무 몰랐다. 유리 재질의 공병은 모두 재활용되는 줄로만 알았는데, 국내로 수입되는 주류병은 해외에서 제조되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재사용되지 않고 쓰레기로 분류되어 매립된다고 한다. 처리 비용도 돈이 많이 들지만, 그렇게 땅에 묻힌 공병들이 분해되는 데는 수천 년, 수만 년이 걸린다고 하니 정신이 아득해진다. 서핑 명소로 떠오르며 젊은 층의 유입이 증가한 양양도 수입주류병 처리 문제로 고민을 안고 있었다. 지역에 버려지는 수입주류병의 수요가 연 20만 병으로 추산되어 이를 해결할 방안이 필요했다.

양양군은 국토부 공모사업인 2022년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발굴사업 중 '시민주도 리빙랩형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0억 원을 지원받았으며, 지역민과 함께하는 버려지는 수입주류병을 활용한 '플랫폼 기반 자원순환 캠페인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군을 비롯해 ㈜이즈피엠피와 지역주민들은 수입주류병 새활용센터 사업장 구축과 체험상품 개발 등에 심혈을 기울였고, 올해 6월부터 실증 단계에 돌입했다. 실증 사업이 종료되는 8월 13일부터 연말까지 양양군에서 양양 새활용센터의 운영을 맡고, 2024년 이후에는 민간위탁을 계획하고 있다.

양양군 현남면 인구항길 5-12 (☎033-673-3321)

버려진 공병도 '다시' 보고, '다시' 쓰자.

'다시(DASH)-허브 보틀'은 양양 새활용센터에서 운영하는 체험프로그램이다. '다시(DASH)'는 '고쳐서 새롭게 한다'는 뜻과 적극적인 제안의 의미를 담은 '대쉬'를 중의적으로 함축한 이름이자, 이번 자원순환 캠페인의 핵심 키워드이다. 절단한 수입공병에 이 지역의 허브농장에서 가져온 모종을 심어 완성하는 '허브 보틀'은 새활용의 가치를 이해하고, 식물 심기를 통해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계기를 만들어준다.

'허브 보틀' 만드는 방법은 어렵지 않다. 수거된 병을 미리 자르고, 세척하고, 연마 작업까지 마무리해서 필요한 재료와 함께 세팅을 해두었기 때문에 쉽고 안전하게 체험을 즐길 수 있다. 체험 예약은 자원순환 플랫폼인 '마이어스(My Earth)'에 접속해서 회원가입 후 진행하면 된다. 센터를 직접 방문해도 예약 방법은 같다. 체험을 진행하거나 수입 주류 공병을 수거해오면 마이어스를 통해 포인트를 지급하는데, 이는 관내 식당 또는 카페에서 현금처럼 사용하거나 지역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단체에 기부도 가능하다고 한다. 환경도 지키고, 지역 상권과 소외계층을 돕는 활동까지 여러모로 이로운 활동이다.

양양 새활용센터 개소 이후 현재까지 체험프로그램 참가자 수요는 300여 명(7월18일 기준)에 육박한다. 현재도 관내 단체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으며, 관내 기관을 비롯해 어린이집과 학교 등으로 찾아가는 체험 교육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향후 허브 보틀에 이어 캔들, 디퓨저, 조명 등 시리즈로 체험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하니 기대해봐도 좋겠다.

물론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에 버려지는 어마어마한 양의 수입공병을 다 소화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 문제를 제대로 직시하고 인식 개선을 꾀할 수 있다면, '다시(DASH)' 캠페인의 값진 성과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양양 새활용센터를 오래 지키고 싶은 주민 어벤져스

양양 새활용센터에 가면 체리(Cherry), 데이빗(David), 뽈로(Polo), 제이(Jay), 지에스(G.S), 씨유(See you), 토미(Tommy), 윤(Yoon), 젠(Jen), Lucy(루시), 제이피(J.P) 등을 만날 수 있다. 외국인이냐고? 아니다. 지역이 안고 있는 환경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자원순환 캠페인 플랫폼 사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양양의 주민들이다. 서로를 존중하면서도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영어 이름을 쓴다는 그들은 새활용센터만큼이나 개성이 넘치는 사람들이다. 대부분 도시에서 생활하다가 귀촌을 선택한 이주민으로, 평소 환경문제에 관심이 많아 의기투합해 '시민주도 리빙랩형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밝고 명랑하고 웃음이 많은 사람들이지만, 지역의 환경문제에는 누구보다 진지하다. 그들은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재료를 손수 준비하는 등 본업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센터 운영에 열심이다. 건축 · NGO단체 · 패키지 · 디자인 · 미술 · 공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쌓은 과거 경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환경 캠페인 활성화를 위해 똘똘 뭉친 그들의 모습은 흡사 지구를 구하기 위해 모인 어벤져스 같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렇게 가치 있는 활동이 '반짝' 이슈로 끝나는 건 아닌지 걱정하고 있다. 자원순환 캠페인과 새활용센터가 그저 성과 위주의 단기성 사업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영리를 위한 활동이 아닌 지역의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 하나로 모여 이어가는 활동이기에, 양양군의 지원과 관심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견해다. 주민들은 지속가능한 캠페인을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양양 새활용주식회사'라는 법인을 설립하고, 사회적기업으로의 진로를 모색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일상에서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나름 이어가려 해도, 편의에 길들어진 생활습관은 좀처럼 바뀌지 않는다는 게 함정. 그럼에도 다시, 또다시 환경을 돌아보는 마음과 의지는 필요하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말이다. 불편하고 험난한 환경 사랑 실천의 길을 양양 새활용센터 그리고 '다시(DASH)' 캠페인과 함께 오래 걸을 수 있기를 바란다.

〈글 · 사진 : 편집부〉

양양, 어제 그리고 오늘

죽도해수욕장 (1986년)

죽도해수욕장 (2023년)

의정소식

제9대 양양군의회가 걸어온 1년

군민들과 더 가까이 소통하며, 실천하겠습니다!

의장 오세만

제9대 양양군의회(의장 오세만)가 지난해 7월 1일 개원 후 어느덧 1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며 소회를 밝혔다.

지난 1년 동안 3만 양양군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군민을 대표하여 군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내리고 이를 바탕으로 올바른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과 사명감 아래, 집행기관과 협력하고 군민들과 호흡하며 쉼 없이 달려왔다.

앞으로 강원특별자치도 비전인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로 양양군을 견인할 수 있는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해 양양군의회도 뜻을 함께하고 군 정책에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여, 전문성을 갖춘 의정역량을 발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했다.

더불어 "우리가 대변해야 할 군민의 목소리가 여전히 많으며, 군민에 대해서는 의회의 문턱을 낮추고 마음을 헤아리고, 군정에 대해서는 엄격한 견제와 감시, 상생과 공존의 자세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의회로 나아가겠다"며 앞으로 양양군의회가 나아갈 가치에 대하여 밝혔다.

무엇보다 의원발의 조례에 시책의 방향성을 적극 반영하고 제도개선에 앞장서며 복지 · 문화 · 교육 · 환경 · 안전 등 여러 분야를 다각도로 살펴 양양군민의 행복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례회 3회, 임시회 7회 등 102일간 총 10회 회기 운영

183건 안건 심의 의결, 의원 발의 조례 32건 제 · 개정

제9대 의회 첫 회기인 2022년 7월 1일 제265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올해 6월에 있었던 제274회 정례회까지 총 10회기를 운영하여 183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소통하는 의회, 실천하는 의회" 의정 목표 아래 '경청의정 실현, 열린의정 실천, 현장의정 강화'를 구현하기 위해 활발한 조례 제 · 개정,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 방

문 및 낙산 대형 건축공사장 인근 싱크홀 발생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등 생활 현장 곳곳에서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고,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복지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2023년 본예산, 추경예산 심사를 통하여 선심성 예산, 불필요한 예산 등 사업추진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심층 분석하여 실제로 군민들이 원하고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파악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 생활 안정 지원 등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되도록 하여 예산절감은 물론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집행부 각 부서가 추진 및 계획 중인 정책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엄정한 감사를 진행해 194건에 대해 처분 요구 및 시정 · 권고 조치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집행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그에 대한 대안을 사전에 제시하여 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군민을 위한 감시에 앞장서는 의회상을 구현했다.

이종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양교육지원청 신설 촉구 건의안'**은 강원도 18개 지자체 중 유일하게 양양군만 독립된 교육지원청이 존재하지 않아 양양군 학생과 학부모들이 누려야 할 보편적 교육복지와 서비스 등의 교육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는 불합리한 교육 현실을 지적하였다.

김의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8군단 해체에 따른 군사기지 지역 환원 촉구 건의안'**은 지난 수십년 동안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역주민의 권익이 침해당한바 그동안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해온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8군단 군사기지를 지역과 원소유자에게 환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박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릉시 주문진 지정폐기물 매립장 설치 반대 결의안'**은 주문진 향호리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장 지정폐기물 매립시설의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양양군 현남면 9개 마을이 포함되어 있어 군민들의 건강권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립장 설치사업을 즉각 철회할 것을 결의하였다.

또한 군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선제적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군민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군정의 올바른 이해와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효율적인 군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69건의 군정질문를 통하여 주요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추진방향 및 대안제시 등 군정전반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였으며,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이명숙 의원), 재난재해 대비 행정협업시스템 강화(최선남 의원) 등 4건의 자유발언을 통하여 선제적 정책방향을 제시하며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하였다.

양양군의회 실시간 IP방송 청취 – 양양군의회 홈페이지(http://www.yangyangcouncil.go.kr)

바꾸미들이 넘던 길, 단목령

설악산과 오대산 사이 백두대간(白頭大幹)에는 양양에서 영서지방으로 가는 총 여섯 개의 영이 있다. 오색령(五色嶺), 필여령(弼如嶺), 단목령(檀木嶺), 북암령(北巖嶺), 조침령(阻枕嶺), 구룡령(九龍嶺)이 그것이다.

〈박달령이 표기된 고지도와 최근지도〉

단목령은 양양군 서면과 인제군 기린면을 잇는 길로 원래는 박달재로 불리던 곳이다. 박달나무가 많아 그렇게 불렸는데 일제강점기 창지개명(創地改名)을 하면서 지도에 박달령(朴達嶺)을 단목령(檀木嶺)으로 표기한 이래 현재까지 그렇게 부른다.

단목령 정상에서 인제 진동리 설피밭까지는 1.4km, 양양 오색2리 오색분교까지는 2.9km로 양양과 인제를 잇는 지름길인데 해발 855m로 높이 또한 여섯 영(嶺) 중에서 가장 낮다.

이 길을 통해 두 지역 간에 물물교환이 이루어졌는데 양양에서는 소금과 말린 생선 등이 넘어가고 인제에서는 씨감자, 콩, 면화, 마른고추 따위가 넘어왔다. 이렇게 물건을 맞바꾸어 지고이고 나르는 것을 '바꾸미'라고 부른다.

씨감자를 정부에서 보급하기 전, 양양 농부들은 영서지방의 고냉지 감자를 구하여 종자로 썼다. 바꾸미 김완달 · 추종삼 어르신의 증언에 의하면 소금, 명태, 고등어자반, 마른미역을 한 짐 지고 단목령을 넘어 진동리 설피밭으로 가면 그곳에서 5포대의 씨감자와 교환할 수 있었다고 한다. 씨감자의 양이 많고 무거운데다 비탈길이 가팔라서 짐을 한 번에 나를 수 없어 씨감자를 작게 나누어 여러 차례에 걸쳐 일정한 장소까지 나르고 다시 그 다음 장소로 운반하기를 반복하여 오색분교 근처까지 힘겹게 전셋짐[1]으로 옮겨와 질메[2] 또는 경운기에 싣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한다. 바꾸미들의 물물교환을 위한 왕래(往來)는 1970년대 초반까지 행하여졌다고 한다.

〈단목령 정상 표지판과 장승(사진 강원도민일보)〉

바꾸미와 관련된 가슴 아픈 일화도 있다. 한국전쟁으로 남편은 인민군에 끌려가 생사를 모르고 전쟁 통에 집은 불타버리자 양양 수복 후 김충현(여, 현재 95세) 어르신은 장이라도 담구어 가족들을 연명시키려고 봇짐을 만들어 인제 진동리 설피밭 언니네 집으로 간다. 태어난 지 두 돌도 안 된 아이를 업고 시어머니와 같이 소금 열 됫박, 아지(전갱이) 자반 한 두름, 북어 한 쾌를 이고 지고 단목령을 넘어가 언니가 구해준 메주 세 덩이, 메주콩 두 말, 고춧가루, 건나물, 건버섯 종자 등과 맞바꾼다. 당시 길이 험하다고 짐을 지고 영을 넘어 오색까지 바래다주고 돌아갔던 형부를 김충현 어르신은 아직도 잊지 못해하신다.

도로가 발달한 요즈음엔 양양에서 인제 진동리로 가려면 터널 하나만 지나면 된다. 차량으로 양양군 서면 서림리에서 조침령터널을 지나면 바로 진동리가 나온다. 단목령을 넘어 다닐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설악산에는 한반도 자생종 식물의 20%에 해당하는 854종이 자라고 있고, 그중 보호대상 희귀식물도 50여 종이나 되어 유네스코는 1982년 이곳을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하였다. 특히 단목령 일대는 박달나무를 비롯하여 신갈나무, 자작나무, 사시나무, 단풍나무 및 피나무 등이 자라고 지표에는 각종 산나물, 약초, 야생화 등 임산자원이 풍부한 식물자원의 보고로서 생태적가치가 높아 천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1987년부터 입산통제를 하고 있다. 바꾸미들이 생계를 위해 넘나들던 박달재 산길이 원시자연으로 복귀하는 중이다.

〈단목령 입구(사진 강원도민일보)〉

단목령은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야생화의 천국이자 옛사람들이 등짐을 지고 험한 고개를 넘어 삶을 이어갔던 애환이 남아 있는 곳이다. 곰배령이 위치한 인제 산골을 지나 단목령을 넘어 명승지인 오색 주전골을 둘러보고 해오름에 고장 양양 해변을 걸어서 구경할 수 있는 잠재적인 관광자원이기도 하다. 단목령의 자연이 충분히 안정되면 예약제 탐방 등 제한적 개방도 고려해 볼 일이다.

(1) 전첫짐 : 큰 짐을 소분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일정한 장소까지 나르고 그 다음 장소로 운반하기를 반복하여 최종목적지까지 옮기는 방식을 일컫는 말.

(2) 질 메 : 짐을 운반하기 위하여 소의 등에 얹는 기구.

〈글 · 사진 : 양양문화원〉

양양뉴스 YANGYANG NEWS

올 여름 '고고양양' 앱으로
스마트하게 휴가 보내세요

올 여름 '고고양양' 앱으로 스마트하게 휴가 보내세요!

지난 6월 1일 출시한 앱 '고고양양'은, '내 손안의 파도, 스마트한 여행, 스마트 서프시티 양양' 구현을 목표로 하여, 스마트폰 하나로 관광, 서핑 관련 여러가지 편의를 즐길 수 있는 앱이다. 앱 회원가입을 통해 지역 관광지 및 서핑정보 검색, 서핑숍 · 관광체험 · 음식점 · 카페 등을 예약결제 할 수 있고, 양양브랜드 콜택시를 버튼 하나로 호출할 수 있다. 또한, 관광 관련 13개 카테고리 1,000여개 관광 스팟에 대한 상세 정보는 물론, 서핑특화 콘텐츠로, 양양군 주요 13개 서핑해변의 특징과 실시간 파도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파도웹캠 등 세분화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양양남대천, 올해 관광객
90만명 이상 왔다 갔다..증가 추세

양양남대천, 올해 관광객 90만명 이상 왔다 갔다..증가 추세

남대천 르네상스 사업으로 재탄생한 양양남대천이 올해 90만명 이상이 다녀가, 새로운 관광 명소로의 부상을 입증했다. 생태환경 복원과 생태관광지 조성, 수변 산책로 및 휴게쉼터 조성 등으로 자연성을 회복하고 친수공간으로 정비되어 수변과 도시가 조화를 이루는 공간으로 재탄생한 남대천이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관광 명소로 각광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명품하천으로 거듭나며, 자연친화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한 남대천이, 생태와 문화가 지속적으로 공존하여 주민과 관광객 누구나 맘껏 힐링할 수 있도록 관리에 심혈을 기울일 방침이다.

남대천 파크골프장
45홀로 확장 완료

남대천 파크골프장 45홀로 확장 완료

남대천 파크골프장은 지난 2021년 27홀로 새롭게 단장되었고, 남대천을 배경으로 매우 쾌적한 환경을 가지고 있어 여러 대회가 개최되는 등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군은 전국대회 유치 및 방문객 유입 등을 위하여 사업비 13억 원을 투입해 지난 13일 18홀(21,600㎡)을 확장하여 전국적으로도 큰 규모인 45홀(49,600㎡)로 조성하였다. 특히, 코스 구간내에는 더위를 식혀줄 느티나무 및 이팝나무와 여러 관목수종을 식재하는 등 남대천 주변 경관과 어울리도록 조성하였으며, 자연놀이터 및 다목적마당, 산책로 등을 조성하여 일반인들의 접근성을 크게 개선하였다.

2024년도 주민참여
제안사업 공모 접수

2024년도 주민참여 제안사업 공모 접수, 8월 31일까지

양양군이 8월 31일까지 주민참여 제안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주민참여 제안사업은 군민이 직접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해 생활 속에서 필요한 사업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이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제도이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 사업규모는 모두 7억 원으로 사업비 5천만원 범위 내에서 추진가능한 단년도 사업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며, 다수 주민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을 우선해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여름 휴가철 맞아
피서지 물가안정관리 추진

여름 휴가철 맞아 피서지 물가안정관리 추진

양양군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피서지 물가안전 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관내 해변, 계곡, 캠핑장 등 피서지 내 가격표시제, 불법 이용료 징수 등 불공정 행위 근절에 나섰다. 군은 오는 8월 31일까지를 휴가철 물가안정 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2개반 14명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불공정행위 등을 점검하는 한편, 군청 경제에너지과에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설치해 불공정 상행위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응한다. 합동점검반은 관광분야, 공중위생분야, 농정분야 등으로 편성되어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송이연어푸드 디자인센터,
하반기 교육 수강생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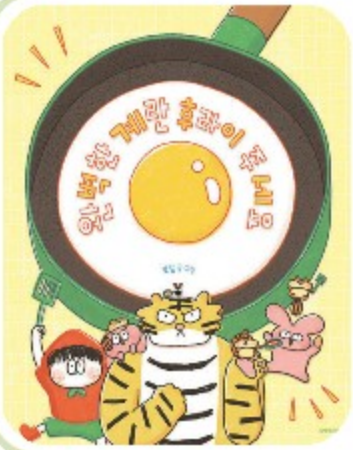
송이연어푸드 디자인센터, 하반기 교육 수강생 모집

지역에서 생산된 식재료를 활용한 대표음식 개발과 창업의 모티브 제공, 농특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여나가기 위해 송이연어푸드 디자인센터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하반기 교육 수강생 24명을 8월 18일까지 모집한다. ▲지역관광기념육성 과정(현업)에 1개소를 모집하여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6일까지 진행하며, ▲대표음식 과정(일반부)에는 12명을 모집하여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하고, ▲다양한 우리쌀 활용 교육(한식 디저트)에는 현업종사자 및 예비창업자 12명을 모집하여 9월 18일부터 11월 13일까지 진행한다.

양양교육도서관
사서추천도서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로 50 양양교육도서관
Tel : 033-672-2679 FAX : 033-672-2689
https://lib.gwe.go.kr/yylib

어린이



완벽한 계란 후라이 주세요

글 · 그림 : 보람

발행처 : 길벗어린이 / 발행년 : 2023 / 청구기호 : 아813.8-보292ㅇ / 자료위치 : [양양]아동열람실

마옹 식당의 개업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친구들. 그런데 마옹 요리사가 화장실에 간 사이, 손님이 찾아온다. "완벽한 계란 후라이 주세요. 멍멍!" 주문만 한 채 사라진 멍멍 손님에 축하 파티를 준비하던 친구들 모두 당황하던 것도 잠시, "그런데 완벽한 계란 후라이가 대체 뭐지?" 친구들은 저마다 생각하는 '완벽한 계란 후라이'를 만들기 시작한다. 엄청나게 커다란 후라이? 잘 익은 후라이? 아주 동그란 후라이? 싸고 질 좋은 후라이? 완벽한 계란으로 만든 후라이? 완벽한 요리사가 만든 후라이? 모두의 고민이 깊어질 때쯤 마옹 요리사가 식당으로 돌아오고, 후라이를 찾으러 온 멍멍 손님의 요구에 맞춰 계란 후라이를 만들어 낸다.

청소년

호랑이가 눈뜰 때

저자 : 이윤하

송경아 옮김 / 발행처 : 창비 / 발행년 : 2023 / 청구기호 : 843-이66ㅎ / 자료위치 : [양양]종합자료실

한국계 최초로 휴고상에 3년 연속 노미네이트되고 로커스상을 수상하며 세계적인 작가의 반열에 오른 이윤하 작가가 신작 장편소설. 『호랑이가 눈뜰 때』는 호랑이령 주황 부족의 열세 살 '세빈'이 우주군에 생도로 입대하며 겪는 이야기를 그린 스페이스 오페라다. 공용어가 한국어이고 공식 의복이 한복인 이채로운 세계관이 눈길을 끌며, 광활한 우주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스펙터클한 모험이 쾌감을 선사한다. 또한 호랑이 설화, 구미호 전설 등 한국 문화를 SF 세계관에서 만나는 독특한 재미를 느낄 수 있으며, 빠른 전개 속에서 등장하는 박진감 넘치는 액션은 손에 땀을 쥐게 한다.

일반

식물적 낙관

저자 : 김금희

발행처 : 문학동네 / 발행년 : 2023 / 청구기호 : 814.6-김17ㅅ / 자료위치 : [양양]종합자료실

2020년 여름부터 2022년 겨울까지 한겨레 ESC에 '식물 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연재된 에세이에 더해, 당시에는 아직 연약해서 꺼내놓기 쉽지 않았던 작가 자신의 내면을 지긋이 응시하는 미발표 원고들을 담았다. 작가가 식물과 더불어 살아가며 통과하는 사계절의 풍경을 따라가며 그 풍경의 변화에 따른 마음의 굴곡을 저자 특유의 아릿하고도 부드러운 필치로 그리고 있다. 복잡다단한 인간사에 초연한 채 각자의 본능적인 삶의 실천만을 이어가는 식물들이 이룩한 발코니 속 별세계를 묘사하는 산문들을 읽다보면, 어느새 주어진 현실을 단순하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자체를 삶의 명확한 목표로 재설정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양양 작은영화관 상영예정작

더 문

비공식작전

달짝지근해

보호자

콘크리트 유토피아

작은영화관 기획전

※영화와 개봉날짜는 배급사와 영화관의 사정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양양작은영화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https://yangyang.scinema.org ☎033-673-7050

물놀이 안전수칙

질병관리청

양양소식지 일자리정보

양양군청 본관3층 경제에너지과 TEL. 033-670-2289 / FAX. 033-670-2303

사업장명	모집인원	모집직종	근무시간	급여
하나로상사 (강현하나로마트)	1명	마트 상품진열원	09:00~18:00(주5일)	월210만원
(주)이안바이오	1명	소금제조 및 포장원	09:00~18:00(주5일)	월230만원 이상(협의)
썬라이즈빌아파트	1명	아파트 경비원	격일근무	월210만원~220만원
(주)아람인테크(쏠비치)	4명	구내식당 보조원	3교대근무	월220만원~230만원
광운통신(주)	1명	방송, 통신, 인터넷케이블설치, 수리원	09:00~18:00(주5일)	월222만원
강선LH아파트 관리사무소	1명	시설관리원	격일근무	월244만원
참자연 영농조합법인	1명	가공식품 생산직	09:00~18:00(주5일)	월205만원
(주)은진유통	1명	마트 상품진열원	09:00~18:00(주5일)	월250만원
(주)매홍엘앤에프	1명	구내식당 보조원	10:30~14:30(주5일)	시급11,544원
(주)동양기전	2명	배전활선전공원	08:00~17:00(주5일)	연3,000만원(협의가능)
(주)월드와이드 써비스코리아	1명	구내식당 조리사	08:30~17:30(주6일)	월226만원
KAC공항서비스(주)	3명	건축, 기계, 전기분야 기간제(7월~10월)	시간협의	월223만원~250만원
행복관리주식회사 (오션스테이)	1명	시설기사 (소방안전관리자1급)	격일근무	월302만원
펠리치타	1명	펜션객실 청소원	09:00~17:00(주6일)	월260만원
(주)남양인더스트리	1명	금속가공 생산직	08:00~17:30(주5일)	월230만원
양양수산	1명	수산물 가공생산직	08:00~17:00(주5일)	시급9,620원
주식회사 은진 (브리드호텔)	1명	공용부문 청소원	08:30~17:30(주5일)	월230만원~250만원
(주)제이제이네트웍스 (설해원)	5명	골프장 코스관리원	07:00~17:00(주5일)	연3,200만원
크레에이티브 컴퍼니 주식회사	2명	바리스타 (동산 인스턴스호텔)	10:00~20:00(시간협의)	시급11,000원
더조은요양원	2명	시설 요양보호사	3교대근무	월201만원 이상
양양서비스 기아오토큐	3명	자동차정비 어드바이저	09:00~18:00(주5일)	월201만원 이상(협의)

2023년 군민정보화교육 일정안내 (3차)

회차	월별	기간	접수기간	수강내용
3차	9월	8.28. ~ 09.21.	3차접수 8.21. ~ 8.25. (4개월 교육) (주간반) 화,목 (야간반) 월, 수, 목	(주간반) ● 컴퓨터 기초반 (컴퓨터 입문 및 인터넷 기본과정) ● 한글 입문반 (한글의 기본과정) ● 디자인 입문반 (포토샵의 기본과정) ● GTQ포토샵 (자격과정 강의 및 실습 병행) ● 멀티미디어 입문반 (무비메이커, 파워디렉터) ● 스마트폰 활용 (동영상 관련 앱 활용) (야간반) ● 한글 기초 (강의 및 실습 병행) ● 엑셀 기초 (강의 및 실습 병행) ● 컴퓨터활용능력 (강의 및 실습 병행) ● 스마트폰 활용 (기본 앱 활용)
	10월	10.2. ~ 10.26.		
	11월	10.30. ~ 11.23.		
	12월	11.27. ~ 12.21.		

- 교육장소 : 문화복지회관 3층 컴퓨터정보교실(제1교실)
- 교육인원 : 각반12명(선착순)
- 교육시간 : (주간반) 10:00~12:00(화,목) / (야간반) 18:30~20:30(월,수,목)
- 신청방법 : 양양군청 자치행정과 (☎033-670-2116) **※교육일정 및 수강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 양양군에 주소를 둔 건물에 한함
  ※신청자는 주택 소유자를 원칙으로 하나 주택 소유자와의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 시, 세입자도 신청가능
- 지원요건 : 도시가스(LNG)가 공급되는 지역에 당해 연도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를 교체(설치)하는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보일러에 한함**
- 지원금액 : 일반세대 10만원/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60만원/대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 가능
- 신청접수 : 양양군청 환경과 방문접수 또는 인터넷 접수 (www.greenproduct.go.kr/boiler)
- 문의사항 : 양양군청 환경과 (☎033-670-2182)

양양군청 공무원 기독교 모임 '양양군청 신우회' 창립

양양군청 공무원 기독교 모임 '양양군청 신우회'(회장 김학신)의 창립식이 지난 17일 18시 30분, 군청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신우회'는 회사나 특정 기관, 조직체 등에서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같은 고민과 비전을 나누며 신앙생활의 유익을 위해 결속한 모임으로, 양양군청 내 기독교 모임 결성은 처음이다.

창립식에는 김진하 양양군수, 은샘교회 유대영 목사, 양양감리교회 조선석 목사, 손양감리교회 이은원 목사, 성은교회 김양수 목사 등 4개 교회에서 참석하여 창립예배와 함께 창립을 축하했다. 신우회 정기모임은 매월 1회 개최되며, 군정의 성공적 추진 및 기독교 문화전파와 함께, 향후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등 봉사활동도 실시할 계획이다.

환경부 · 양양군

재활용품 분리배출 안내

반드시 분리하여 **재활용품 수거함에 넣어주세요**

페페트병(음료·생수)

투명과 유색을 분리해 지정된 배출함에 넣기

골판지 박스

택배 송장 스티커, 테이프 제거

- 테이프 등 종이류와 다른 재질 제거
-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도록 접어서 배출

신문·책자류

스프링은 떼어서 따로 배출

- 스프링 등 종이류와 다른 재질은 제거 후 배출해주세요

종이팩

- 종이팩은 일반 종이류와 구분하여 종이팩 전용 수거함에 따로 배출해주세요 (수거함이 없는 경우 묶어 종이류로 배출)

플라스틱류

각 이물질·용기제거 후 재활용품으로 배출

재질별로 분리하여 배출
- 음료용기 ▶ 은박지 제거
- 물티슈 ▶ 캡 분리

기타

부착물을 제거한 후 분리 배출 (부착물 ▶ 종량제 봉투, 본체 ▶ 재활용품)

폐가전품(대형/소형) 분리배출 방법(무상수거)

대상품목

대형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자동판매기, 런닝머신, 복사기, 전기정수기, 공기청정기, 전자레인지, 식기세척기, 냉온정수기, 제습기 등

소형
전기밥솥, 청소기, 가습기, 노트북, 헤어드라이기, 선풍기, 다리미, 녹즙(믹서)기, 휴대폰(배터리 포함), 비데 등

배출방법

사전 예약방법 (배출자 개별신청)
1. 콜센터 전화 : 1599-0903 (평일 08:00~18:00) 2. 인터넷홈페이지 : www.15990903.or.kr
세트 품목 : PC세트(본체+모니터), 오디오세트 / 소형가전은 5개 이상이 되어야 수거신청 가능

대형폐기물
전기장판 / 욕매트 / 조명기기 / 악기 / 전기안마의자 / 가구(장롱, 침대, 매트리스 등)
대형 폐기물로 지자체 개인별 신청 (문의는 해당 군청 환경과)
*별도 처리수수료 부담

행정안전부

국민 안전을 위해 2023년 7월 1일부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이렇게 달라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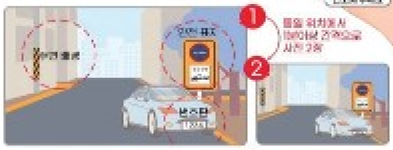
인도 불법주정차 주민 신고
전국 어디서든 1분 간격으로 가능!

횡단보도 불법주정차
신고 구역을 정지선도 포함하여 운영!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소화전 5m · 교차로모퉁이 5m · 버스 정류소 10m · 횡단보도 · 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 정문 등) + 인도

신고 방법 : 안전신문고 앱을 사용하여 아래 방법으로 불법주정차 사진 촬영 후 신고

1. **동일한 위치(전면 또는 후면)에서 1분 이상의 간격(행정 예고에 따라 다를 수 있음)으로 사진 2장을 촬영**해 주세요
2. 위반지역을 알 수 있도록 **안전표시, 횡단보도 등 주변배경이 나오게 촬영**해 주세요
3. **차량번호**는 사진상 식별이 가능해야 합니다



사계절 느끼며 보고 싶은

2023 양양4계 관광 전국사진공모전

응모자격 : 2021년 1월부터 ~ 2023년 사진, 전 국민 누구나 참여가능

- **작품내용 : 양양군의 10경**
  1)남대천 2)대청봉 3)오색길 4)오색주전골 5)하조대 6)죽도정 7)남애항 8)낙산사 의상대 9)오산리 선사유적박물관 10)시점
  *축제의 주제를 잘 표현한 작품, 양양군의 늘·어촌 생활상
- **작품규격 : A 일반사진 – 11x14인치 컬러사진**
  B 스마트폰 사진 – 8x10인치 컬러사진
  *드론촬영과 동일인이 A와 B스마트폰 두 분야에 출품은 접수불가
- **출품료 : 없음**
- **출품수 : 1인 4점 이내(A, B공통)**
- **접수처 : 양양예총**(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일출로340) 내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양양지부 (M. 010-6371-3459)
- **접수기간 : 2023. 8. 21(월) ~ 9. 15(금) 소인 유효**
- **작품심사 : 접수마감 후 7일 이내**
- **심사발표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공모전결과발표게시, 양양군문화재단 게시판**
- **시상일시 : 10월 양양송이축제 개막식 (수상자에게 개별통보)예정**

■ 시상내역-(작품구입비)

구 분	A. 일반사진 부분		B. 스마트폰 부분	
합계	27점		14점	
금상	1	500만원		
은상	1	100만원	1	100만원
동상	2	80만원	1	50만원
장려상	3	50만원	2	30만원
입선	20	20만원	10	10만원

*시상식에 불참할 경우 상금은 불우이웃돕기에 사용됩니다.

■ 기타사항
1. 작품수상자발표 후 수상자는 원본파일 3,000픽셀 5 MB이상이며, 스마트폰은 용량 3MB 이상 이메일(yycf@yycf.or.kr)로 제출해야 함
2. 입선 이상작은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입회점수로 인정함 (스마트폰 작품은 제외)
3. 입상·입선작의 저작물 사용권은 주최측에 있으며 출판 홍보용으로 사용할 수 있음
4. 동일작품, 모사작품, 합성작품을 출품하여 입상·입선되었을 경우 상권취소 및 회원은 상계, 비회원은 7년 이내의 기간 동안 입회유보(촬영일자 변경 또는 수정 불가)
5. 작품에 나오는 초상권 문제는 출품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음
6. 입상·입선작품은 원본 풍경사본, 선문증사본을 심사발표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상금은 원천세 및 금융수수료 공제 후 지급함
7. 낙선작은 반환하지 않습니다(원판 접수를 사용바랍니다)
8. 출품규는 양양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도 다운 받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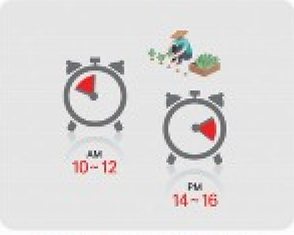
주최 (재)양양문화재단 주관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양양지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행동요령

행동요령 실천을 통하여 건강하게 여름 보내세요

공사장 등 현장근로자
폭염시간대 휴식 취하기

무더위쉼터 등 시원한 장소를
이용하여 더위 식히기



무더위 시간대 논·밭 작업을 포함한
야외활동 자제하기

불가피하게 외출할 때
양산, 모자 등 사용하기

강원특별자치도

통합 양양중·고등학교 총동문회 출범기념

양양 페스티벌

YY FESTIVAL

남·여 양양중·고등학교 총동문회 통합을 널리 알리고
양양중학교, 양양고등학교 재학생의 자긍심을 높이고
동문과 양양군민이 함께하여 서로 화합하고 하나가 되고자
마련한 음악 축제입니다!

공연일시

2023. 9. 16. (토) 18:30 ~ 21:20

식전 공연, 축하공연, 통합 선포 기념식, 나이트존, 불꽃쇼

공연장소 **양양남대천 잔디광장** (웰컴센터 맞은편)

출연진 장윤정, 래퍼 래원, 박상민, 오드아이, 풍금,
DJ퍼포먼스팀 레트로, 모교 재학생 동아리

주최 통합 양양중·고등학교 총동문회 **후원** 맥산그룹